

해남, 중국 민간교류 확대 나선다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호남지회 창립 운영석·민경매 회장...농산물 수출 확대

해남군과 중국 간의 다양한 민간교류를 위한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호남지회가 해남에서 창립됐다.

지난달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해남문화원 소강당에서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호남지회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공식 출범한 호남지회는 운영석·민경매 회장이 이끈다.

이날 창립 기념식에는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부사장의 축하영상에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병덕 해남군의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신경숙 이사장과 임흥근 회장의 격려사가 뒤를 이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해남군은 지난 2020년 7월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명현관 군수를 주한중국대사관으로 초청하면서 교류를 시작, 이번 호남지회 창립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해남 가바쌀 대중국 수출기념식 때 명현관 군수가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해남으로 초청했고 상하이밍 대사가 답방형식으로 해남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2020 11월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해남군은 중국과의 경제 문화 교육교류를 위해 시·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를 통해 올해 1월 상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명현관 군수에게 중국도서 300권을 기증했고 지난 7월에는 해남군이 큰 수혜를 입었다는 소



해남군은 최근 해남문화원 소강당에서 해남과 중국 간의 다양한 민간교류를 위한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호남지회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식에 협회 차원에서 해남군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해남군의 이처럼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호남지회가 만들어 졌다.

호남지회는 도자기 연구 및 다도, 전통 음식, 전통국악, 지역청년활동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해남군과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다.

호남지부는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자매결연 추진 시 민간영역을 담당, 청소년 한중교류 지원, 도자기 및 다도 관련 문화교류, 해남 농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 등에 역할을 한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 '섬초' 경쟁력 강화 팔 걷었다

기계화 추진...맞춤형 농작업기 도입

신안군이 맛과 영양이 뛰어난 지역 대표 농산물인 섬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채소류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겨냥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시금치 파종을 시작했다.

'섬초' 브랜드로 출하되는 시금치는 잎이 넓고 두꺼워서 일반 시금치에 비해 품질과 맛이 좋아 소비자에게 좋은 식재료로 인정을 받으며 재배 농가의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파종에서 수확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더해져 재배면적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신안군은 내년까지 '신안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재배 전 과정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으로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금치 주산지인 비금면과 도초면의 서로 다른 토양환경을 고려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 및 수확기, 관리기 등 맞춤형 농작업기를 도입해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안군 시금치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133ha로 수확 노동력을 90% 이상 절감하고 수량은 30% 이상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비금면과 암태면에는 시금치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으로 연중 시금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중이다.

박우량 군수는 "농촌 노동력 감소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금치 경쟁력 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소득 증가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금치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해남 수성송 생육환경변화 연구 용역

자동기상관측 타워 설치

해남군 신청사 이전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해남군이 군청사 앞 소나무인 수성송의 생육환경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청 앞 광장에 위치한 수성송(守城松)은 높이 17m, 둘레 3.18m의 소나무로 수령 500년 가량의 고풍수이다.

조선 명종10년(1555) 달량진(현 북평면 남창)에서 왜구를 물리친 달량진해전을 기념해 동헌 앞뜰에 심어진 소나무로 지금도 해남읍을 지키는 상징으로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회백색의 굵은 외줄기에 가지가 여러개로 나뉘어 늘어선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를 더해 천연기념물 제430호

로 지정돼 있다.

해남군은 신청사 이전 및 구청사 철거 등으로 수성송의 식생 환경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수성송에서 약 5m 떨어진 위치에 자동기상관측타워를 설치했다.

2023년 1월까지 운영되는 자동기상관측타워는 자동 센서를 장착해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데이터를 수집해 기존 청사 철거 전후 변화를 측정한다.

향후 구청사 철거와 군민광장 조성시 수성송 보존 방안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성송은 해남인의 활발한 기상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청사 이전으로 인해 식생에 영향을 없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해경,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목포해양경찰서는 실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30일부터 2021년 하반기 1차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다.

훈련 내용은 ▲해상 인명구조 ▲해상

수색 ▲해상사격 ▲불법외국어선 검문 검색 ▲선내진압 및 탈출유도 ▲소화·방수 훈련 등 총 12개 훈련종목으로 실시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해양경찰관의 직무수행 능력과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영암, 청년 희망 디딤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영암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3년간 매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과 똑같은 금액을 전남도와 영암군이 지원해 만기 시 총적립금 720만원과 이자 혜택을 받는다.

영암군은 오는 8일까지 2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암군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근로자는 최근 6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 경력, 사업자인 경우 최근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읍·면 사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무안군은 최근 일로읍 우비선착장, 청계면 월선저수지, 해제면 태원간척지 등에 동자개 12만 3,000여 미를 방류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 동자개 12만여 미 방류

무안군은 최근 일로읍 우비선착장, 청계면 월선저수지, 해제면 태원간척지에 내수면 수산자원을 방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수산종자는 동자개 12만 3,000여 미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

부가가치 어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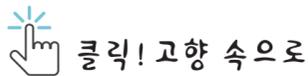
지역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자원남획, 어장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에 적극 동참했으며, 무안군은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규 청호어촌계장은 "이번 동자방류

는 지역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토종어종의 고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방류사업을 실시해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충분한 어업자원 조성으로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영산강의 유해어종인 배스, 블루길 퇴치를 위해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라이온스 355-B2지구 진도, 생필품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2지구 진도 지역 라이온스클럽이 지난 7월 초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화장지 등 400여 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최근 진도군에 전달했다.

생필품은 진도지역 라이온스클럽 이현명 지대위원장과 진도클럽 양형택 회장, 진도동부클럽 박광렬 회장, 진도여

성클럽 이복실 회장 등이 참석해 7개 읍·면을 방문해 생필품을 기탁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2지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이온스에서는 많은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기탁된 소중한 물품은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병호 기자



강진 병영면 지사협, 어르신 생신 챙겨드리기

강진군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신을 축하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전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생신을 맞으신 한 어르신은 "이번 생일도 혼자 보내야 하나 생각했는데 신경 써주고 찾아와 축하해주니 큰 위로가 된다"며 "작은 관심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고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김규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영면 지사협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무안, 심뇌혈관질환 예방 비대면 캠페인

무안군이 최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기혈관수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슬로건 아래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자기혈관 수자알기 캠페인은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의 기초검사와 상담 등 대면 홍보방식을 지양하고 비대면 위주의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해 목표대, 초당대, 무안읍·일로읍 전 통시장 상인회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박주현 기자